

## 일본학연구센터 동정(2008.2.28~8.31)

## I. 학술행사

## 1. 콜로키움

일시	2008년 3월 6일 (제1차)	
발표자(1)	오고시 아이코	긴키대학
	大越愛子	近畿大学
제목	근대일본의 젠더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세이토(靑鞆)』의 여성들 近代日本のジェンダー・イデオロギーに抗する『靑鞆』の女たち	
내용	『세이토』의 동인들은 정조(貞操)논쟁, 폐창(廢娼)논쟁 등을 이끌어내며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이토』의 여성들은 국가주의, 모성주의 논쟁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수렴되었다. 발표자는 『세이토』의 논리가 전후의 반전(反戰)적인 모성운동, 우먼리브운동, 위안 부문제해결 운동 등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 밝혀냈다.	
발표자(2)	이케다 미도리	쓰쿠바대학
	池田碧	筑波大学
제목	가네코 후미코-천황제국가·젠더에 저항하는 사상 金子ふみ子-天皇帝国家・ジェンダーに抗する思想	
내용	가네코 후미코(金子ふみ子)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했는가(何が私をこうさせたか)』라는 옥중수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천황제국가에 의한 성·계급·식민지 지배에 대항하는 사상을 온몸으로 실천하고자 한 인물이었다. 당시의 심문조서, 재판기록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에 가네코가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젠더라는 시점에서 분석하였다.	
일시	2008년 3월 17일 (제2차)	
발표자	나카네 다카유키	에히메 대학
	中根隆行	愛媛大学
제목	식민지적 심성이란 무엇인가-경성제국대학과 재한일본인 植民地的心性とは何か-京城帝国大学と在朝鮮日本人	
내용	일본의 1945년 ‘종전(終戰)’ 이후 식민지적 심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련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패전 후 조선 철수(引き揚げ)의 경험이, 비극과 그 극복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왜곡하고 신화화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	

일시	2008년 3월 18일 (제3차)	
발표자	이나마 쓰기오	규슈대학
	稲葉継雄	九州大学
제목	구한국-조선의 <내지인>교원	
	旧韓国-朝鮮の<内地人>教員	
내용	한국에서의 5년간의 교직생활 체험에 근거하여 구한말·일제강점기 일본인 교원에 대한 실상과 가치인식의 변화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일 근대사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경성제국대학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일시	2008년 3월 20일 (제4차)	
발표자	나미가타 쓰요시	규슈대학교
	波瀾剛	九州大学
제목	노스텔지어의 저편-1958년의 표상을 둘러싸고	
	ノスタルジアの向う側-昭和33年の表象をめぐって	
내용	1958년(쇼와33)의 문화적 표상에 대하여 당시의 영화,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1958년을 전후 부흥기에서 고도성장기의 풍요로움 속에서 느꼈던 공동체감이 충만했던 시기임을 부각시켰다.	

일시	2008년 5월 7일 (제5차)	
발표자	이만열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대학
	Emanuel Yi Pastreich	
제목	중국 통속소설에 대한 양반과 사무라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中国通俗小説に関する両班と侍の共通点・相違点	
내용	중국 통속소설이 한일양국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그 영향과 양상을 분석하여 근세동아시아 비교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백화체의 중국 통속소설이 갖는 진술성과 대중성은 당시 한·중·일의 소설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제시하였다.	

일시	2008년 5월 14일 (제6차)	
발표자	고바야시 나오토	국제교류기금 서울 문화센터 소장
	小林直人	
제목	한일 상호이해는 「감동의 교류」로부터	
	韓日相互理解は「感動の交流」から	
내용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설립의의와 한국과 일본이 오랜 교류 속에서 형성해 온 시민정신을 통해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여 진정한 파트너로 부상할 것을 역설하였다. 참가한 학부, 대학원생들 중에는 한일관계가 진정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식민지에 관련된 왜곡된 역사 기억의 재정립도 필요하다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일시	2008년 5월 16일 (제7차)	
발표자	기무라 가즈아키	리쓰메이칸대학
	木村一信	立命館大学
제목	사회적 사건과 문학표상-금각사(金閣寺)소실을 둘러싸고	
	社会的事件と文学表象-金閣寺焼失をめぐって	
내용	교토의 금각사가 오타니(大谷) 대학생의 방화로 소실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에 대하여 문학자의 작품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미즈카미 쓰토무(水上勉)의 작품과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를 비교하여 사회적 사건이 문학 작품으로 소설화되어가는 방식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일시	2008년 5월 20일 (제8차)	
발표자	허남린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許南麟	
제목	조선침략과 히데요시 정권의 외교전략	
	朝鮮侵略と秀吉政権の外交戦略	
내용	조선침략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입장에서 히데요시의 정권유지, 외교 전략을 분석하였다. 히데요시가 취한 강화교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시에 히데요시가 실패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둘러싼 역학, 자국의 입장에서 이국을 바라보는 시선 등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일시	2008년 5월 22일 (제9차)	
발표자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文正仁	
제목	한국의 민족주의와 외교정책-대일 대중정책을 중심으로	
	韓国の民族主義と外交政策-対日対中政策を中心に	
내용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한중관계, 한일관계, 남북한관계, 중일관계라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민족주의 개념과 외교정책의 특징을 논했다.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국제관계에서 필요한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논리실증주의를 찾아야한다는 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일시	2008년 6월 13일 (제10차)	
발표자(1)	니시하라 다이스케	히로시마대학
	西原大輔	広島大学
제목	실업과 문학	
	失業と文学	
내용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작품을 통해 실업개념과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의 작품을 비교하며 실업의 의미를 성공이라는 입신출세와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출세와 실업의 의미가 교차되고, 이 양자 속에서 고민하는 작품속의 인물들의 상(像)을 통해 성공과 실업의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발표자(2)	이철권	세토쿠대학
	李哲權	聖徳大学
제목	작가와 쓰기라는 행위-소세키(漱石)와 밀란 쿤데라의 경우	
	作家と書くという行為-漱石とミランクンデラの場合	
내용	나쓰메 소세키와 밀란 쿤데라의 '여성'에 대한 관념이 작가에 의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설명했다. 소세키가 정체성 개념 속에서 제시한 여성 표현과 쿤데라의 여성 표현 문제의 차이를 제기했다. 작가가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실천하는 여성 해석의 양방향성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일시	2008년 6월 19일 (제11차)	
발표자	기요토 노리코	쓰쿠바대학
	清登典子	筑波大学
제목	일본의 고전시가의 흐름과 바쇼의 역할	
	日本の古典詩家の流れと芭蕉の役割	
내용	일본의 대표적 가인(歌人)인 마쓰오 바쇼(松尾芭蕉)는 와카(和歌)나 렌가(連歌)의 형식을 원용하면서도 와카나 렌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미를 집목시켜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설명했다. 특히 전통적인 계절어(季語)와 지명어(地名語)를 새로운 개념으로 활용하여 전통의 혁신을 가져왔음을 밝혔다.	

## 2. 국내일본연구자 워크숍

- 일 시 : 2008년 6월 28일(토)
- 장 소 :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2층 원형강의실
- 주 제 :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현황과 비전
- 발제자 : 진창수(세종연구소 부소장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최재목(영남대 교수), 김호섭(중앙대 교수, 전 현대일본학회 회장), 정형(한국일본사상학회, 단국대 일본연구소장), 박광현(동국대 교수), 장제국(동서대 부총장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 토론자 : 이동철(용인대 교수), 성해준(동명대 교수), 임태홍(성균관대 교수), 남기정(국민대 교수), 김상준(연세대 교수),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국내 일본연구자 워크숍은 일본연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연구자들을 한자리에 초빙하여 주제발표와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진창수 교수는 <한국의 일본 지역학의 문제점>라는 주제로 한국 내 지역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현재 일본학 연구는 한국 내 연구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시장에 경도되었다고 진단하고, 향후 학문적 담론의 형성을 통한 질적인 도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재목 교수는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현황, 과제, 전망>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현황, 과제·전망을 통해 '식민지 콤플렉스'를 벗어나 강점기에 행해진 연구자체의 의미, 방법론, 학문 내용과 체계를 검토하고 제대로 된 고증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김호섭 교수는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동향: 정치학

을 중심으로》라는 타이틀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정치학자들의 연구동향과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한국내 일본연구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본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지역학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학문영역으로서 설정하고, 사회과학 개념의 일본학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형 교수는 <한국일본사상사학회의 일본연구>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본사상사학회의 연혁과 연구현황, 문제의식 등을 보고하고, 향후 일본문화의 정체성 및 소프트 파워에 관한 학제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광현 교수는 <재일한국인/조선인 연구와 재조선일본인 연구를 몇 가지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거대 담론 속에 가뒀을 수 있는 재일한국/조선인이 아니라 출신, 귀화, 젠더, 경제적 위치 등에 의한 복수의 목소리를 발견해 내야하는 시대의 도래를 강조했다. 장제국 교수는 <일본연구센터의 현황과 과제—동서대일본연구센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서대학교의 일본연구센터의 10년 비전을 설명하였다. 연구 분야의 특화사업으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일본 종교연구의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해외한인네트워크와 연계한 상호협조를 통해 로컬리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경을 넘는 지역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일본연구의 현주소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와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자간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향후 일본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국내외 교류

본 연구센터는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무사시대학, 데즈카야마가쿠인대학, 베이징일본학연구센터, 텐진사회과학원, 타이완대학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해외 우수한 일본연구 기관과 교류협정(MOU)을 체결하여 연구와 교육 등 각종 학술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해 왔다. 2008년에 새롭게 체결된 해외협력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해외 협력기관>

#### ◆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

2008년 3월 18일 인문학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일본연구를 목표로, 일본지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본연구의 인적 인프라구축과 일본지역자료축적에 의한 일본연구의 허브(HUB)를 위해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와 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

#### ◆ 도호쿠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東北大学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

도호쿠대학동아시아연구센터와 본 연구센터는 2008년 4월 25일 양 연구센터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구의 교류를 위해 교류협정(MOU)을 체결하고 연구자교류와 학술자료교환, 심포지움 등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 ◆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立命館大学コリア研究センター)

리쓰메이칸대학과 본 연구센터는 정기적으로 공동학술회의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양대학간의 관계를 촉진시켜 교육적으로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교류를 활성화할 목적

으로 교류협정(MOU)를 체결했다.

### III. 연구센터 간행물

본 연구센터는 정기간행물인 <일본연구>이외에도 일본연구 수준의 제고를 위한 <일본연구총서>, 심도있는 일본이해를 위해 고전을 번역·출간하는 <일본명작총서>, 글로벌시대의 일본연구를 선도해갈 <현대일본총서>등 다양한 총서를 기획하여 발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일본연구총서 6권, 일본명작총서 5권을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했으며, 2008년부터 도서출판문에서 간행되고 있으며, 제1기로 향후 100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 <현대일본총서>

##### ◆ 『번역과 일본문학』 김춘미 외, 12인 공저(도서출판문, 2008)

글로벌화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번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고려대학교부설 일본학연구센터는 일본번역원을 설립하고 그간 학문의 주변영역에 머무르고 있던 번역, 특히 일한·한일번역을 그 성과물의 제1호로 『번역과 일본문학』을 내놓게 되었다.

#### <목차>

번역과 문학 .....	김춘미
근대 초기 일본의 예술적 번역사상의 탄생 .....	정병호
일본 전후문학 번역의 현재와 그 의의 .....	김효순
미야자와 겐지와 에스페란토 .....	박선양
번역을 통한 사카구치 안고 문학방법의 확립 .....	박현주
해석으로서의 번역 .....	성혜숙
후쿠자와 유키치와 번역 .....	송혜경
일본 추리소설과 번역 .....	아식가자
일한 번역의 번역투 고찰 .....	오경숙
앙리 푸앵카레 번역과 일본의 모더니즘 .....	유재진
문화를 번역한다는 것 .....	이민희
번안과 창작 사이 .....	이승신
다자이 오사무와 번안 .....	이현진

##### ◆ 『일본문화예술의 현장』 서연호 저(도서출판문, 2008)

한국연극분야의 석학 중 한사람인 저자의 일본탐방기록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전지역의 문화예술현장의 시설과 행사 및 구술을 중심으로 2000년 8월부터 2008년 초까지 탐방했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목차>

제1부 한국을 빛낸 사람들	제2부 한일 문화교류의 선도자
제3부 미래를 창조하는 지도자	제4부 참여 협력하는 주민들
제5부 장래성 고려한 문화시설	제6부 생산성 높이는 문화행사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규약

1999. 8. 13 제정

2001. 9. 26 개정

2004. 7. 23 개정

2007. 1. 23 개정

2007. 11. 1 개정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센터는 고려대학교 부설 일본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Center of Japanese Studies,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센터는 주체적이고 보편성있는 연구방법론으로 일본에 관한 제분야를 연구하여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인류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연구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과제 위탁과 지원
2. 국내외 학문교류와 그 지원
3. 학술 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4. 전문 학술지와 연구 총서 간행
5. 일본 및 동아시아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6. 지역전문가 및 인적 자원의 육성
7. 일본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및 정보 축적
8.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 직

제 4 조 (기구) 본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위원회
  - 가. 운영 위원회
  - 나. 연구기획 위원회
  - 다. 편집 위원회
  - 라. 학술·출판 위원회
  - 마. 자문 위원회
  - 바. 특별 위원회
2. 학술토대·실천기구
  - 가. 일본 정보자료원
  - 나. 일본 번역원
  - 다. 한일교류·교육원
3. 연구실
  - 가. 일본 문학·문화연구실
  - 나. 일본 어학·교육연구실
  - 다. 일본 역사연구실
  - 라. 일본 사상·종교연구실
  - 마. 일본 정치·경제연구실
  - 바. 재일코리안·재한일본인연구실
4. 행정기구
  - 가. 총무·기획부
  - 나. 교육·출판부
5. 청산관유지 장학회

제 5 조 (분장업무) 각 연구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문학·문화연구실은 일본의 문학과 제반 문화현상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일본 어학·교육연구실은 일본의 언어와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일본 역사연구실은 일본의 역사와 사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일본 사상·종교연구실은 일본의 사상과 종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5. 일본 정치·경제연구실은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6. 재일코리안·재한일본인연구실은 일본 재일코리안(재일동포, 일본거주 재외국민 포함)과 재한일본인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제 6 조 (임원) 본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3명
3. 연구실장 6명

4. 총무 1명

5. 감사 1명

제 7 조 (소장)

- ① 소장은 본교 문과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인문한국(HK)지원사업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10년으로 한다.
- ② 소장은 본 연구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 8 조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연구실장, 총무)

- ① 일본 정보자료원장은 일본 정보자료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일본 번역원장은 일본 번역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한일교류·교육원장은 한일교류·교육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④ 연구실장은 해당 연구실의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 ⑤ 총무는 회계업무를 포함한 연구소의 제반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⑥ 학술토대·실천기구 원장, 연구실장, 총무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청산과유지 장학회)

- ① 본 연구센터에 청산과유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청산과유지 장학회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② 청산과유지 장학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교 대외협력처 및 학생처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 10조 (감사)

- ① 감사는 본 연구센터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감사는 회계연도의 종료 후에 회계와 정산 내역을 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 (연구교수 및 연구원) 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연구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 연구센터에서 외부 학술과제를 수행

하는 연구자 및 대학의 연구교원 위촉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절차는 고려대학교 연구교원 임용규정에 의거한다.

2.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4. 객원연구원은 본 대학 또는 타 대학 및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이나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본 연구센터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5. 연구보조원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부생, 석사 학위 과정 학생들을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6.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 HK연구교수/원의 임용은 별도의 학교 규정에 따른다.

#### 제 12조 (간사)

- ① 소장은 본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총무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3장 위원회

#### 제 13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 위원회는 소장, 외부 자문위원,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 총무 중에서 8명 내외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③ 회의는 3월 초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소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 2.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
  - 3. 연구센터의 제규정의 제정 및 철폐
  - 4. 연구센터의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 5. HK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 6.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4조 (연구기획위원회)

- ① 연구기획위원회는 소장,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 총무 중에서 연구·기획 과제와 관련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연구기획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기획위원회는 3원6실의 연구 및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3원 실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 15조 (편집위원회)

- ① 편집 위원회는 연구센터의 기관지인 『일본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해외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6조 (학술·출판위원회)

- ① 학술·출판위원회는 소장, 3원6실의 원장 및 실장으로 구성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 ② 학술·출판 위원회는 연구센터의 모든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과 간행물에 관한 편집·출판 업무를 협의하고 관리한다.

제 17조 (자문위원회)

- ① 자문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명예교수, 본 연구센터 관련 연구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본 연구센터의 전반적인 연구방향과 섭외업무에 관해 자문한다.

제 18조 (특별위원회)

- ① 특별 위원회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각 연구실 단위를 넘는 학술활동을 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성립된다.
- ② 특별위원회는 소장, 관련 연구실장 및 특별 위원회 활동에 가장 적절한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 제4장 재 정

제 19조 (경비) 본 연구센터의 경비는 기금, 사업보조금, 연구개발비, 학술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회계연도)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예산과 결산) 소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해 예산서와 사업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 사업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 (회계 감사)

- ① 이 연구원의 수입과 지출은 연 1회 이상 본교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소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 연구소의 운영과 회계 상황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제 23조 (재산의 귀속) 본 연구센터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 제5장 규약개정 및 준용

제 24조 (규약개정 등) 본 연구센터의 규약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운영세칙) 본 연구센터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26조 (준용) 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및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日本研究』 投稿規定

### 가. 투고요령

1. 내용 : 일본문학, 문화, 어학, 교육, 역사, 사상, 종교, 정치, 경제, 재일코리아인, 재한 일본인 등 일본에 관련된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 및 단행본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 : 원고투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 e-mail로 제출한다.
3. 투고원고 제출처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소  
e-mail : kujc@korea.ac.kr  
전화번호 : 02) 3290-2592(일본학연구소)
4. 투고마감일 :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
5. 게재 및 수정 : 원고의 게재여부는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수정에 관한 사항은 심사규정에 상술.)
6. 교정 :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7. 별쇄본 : 게재가 결정된 필자에게는 본 연구지 1부를 증정한다.(별쇄본은 필자의 신청을 받아 제작하며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8. 심사료 및 게재료 :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에 심사료를, 게재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게재료를 일본학연구소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해외투고자의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료, 게재료를 본 연구센터가 지원할 수 있다.)
9. 저작권 :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센터가 소유한다.
10. 지적재산사용동의권 : <저작권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 지적재산 사용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논문을 게재한다.
11. 사이버 출판 : 게재된 모든 논문은 일본학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출판한다.

## 나. 투고논문 작성요령

1. 편집용지 : <B5용지> 위 15, 머리말13, 왼쪽17, 오른쪽15, 아래20, 꼬리말0, 제본7.
2. 원고분량 : 작성요령에 준하여 편집한 상태로 요지, 참고문헌 등을 포함해 16~19매로 한다. 20매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3. 사용언어 : 한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작성 : 논문제목 - 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필자명 - 신명조 11, 줄간격 140, 오른쪽 정렬.  
e-mail address - 신명조 8, 줄간격 100.  
요지 - 신명조 또는 신명조약자 8, 줄간격 140.  
(요지는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하며, 분량은 논문 1면의 1/2쪽 이내로 한다)  
주제어 - 신명조 8, 진하게.  
(논문과 동일한 언어로 4~6단어를 제시한다.)  
큰제목 -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70.  
본문 - 신명조 10, 줄간격 170.  
인용문 - 신명조 9, 줄간격 170, 문단모양: 왼쪽6ch, 들여쓰기 안함.  
각주 - 신명조 9,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 또는 참고한 쪽수를 명기한다.)  
참고문헌 - 신명조 8, 줄간격 140.

기타 참고문헌 작성요령 및 간격의 설정 등 자세한 사항은 <『日本研究』論文作成要領>을 참고한다.

## 『日本研究』 論文作成要領

<논문제목> **일본어 교육의 방향**(신명조 15, 진하게, 가운데정렬.)

**\*\*2줄\*\***

<필자명> 김철수(신명조 11, 줄간격 140.)

<e-mail address> abc@mail.com (신명조 8, 줄간격 100.)

<요지> 작성언어: 영어(권장) 또는 일본어.

분량: 논문 1면의 1/2쪽 이내.

글자크기: 신명조 또는 신명조약자 8, 줄간격 140.

<주제어>: 주제어는 논문과 동일한 언어로 4~6단어를 제시한다.(신명조8, 진하게.)

**\*\*2줄\*\***

<큰제목> **1. 연구목적 및 방법**(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70.)

**\*\*1줄\*\***

<본문> 이 논문은.....(신명조 10, 줄간격 170.)

**\*\*1줄\*\***

### **2. 한국의 일본어 교육의 실태**

**\*\*1줄\*\*** (작은 제목과 본문 사이는 띄지 않음.)

<인용문> 원문의 인용은 행을 새로 하여 상하를 한 칸 띄운 뒤 ‘문단설정’을 한다.

(글자모양: 신명조 9, 줄간격 170, 문단모양: 왼쪽6ch, 들여쓰기 안함.)

<각주> 신명조 9, 줄간격 140, 정렬방식: 양쪽 혼합.

\* 각주의 인용 및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발행년도와 쪽수 등을 명기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제목은 신명조 12, 진하게, 줄간격 140.

참고문헌 내용은 신명조8, 줄간격 140.

\* 필자명을 기준으로 국문, 일문, 영문 순으로 각각 가나다, 오십음,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 필자명(연도), 논문 또는 단행본명, 게재권 호, 발행처, 쪽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 『日本研究』 審査規定

### 제1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제2조 (투고 논문)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이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 (논문의 내용)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문화, 일본어교육 등 일본학 관련 분야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국내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제4조 (논문의 체제)

투고 규정에 제시한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 (논문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판정소견을 소정 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논문심사서와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E-mail로 송부한다.

### 제6조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수정이 성실히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
3.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4. 심사위원간의 '계재'와 '수정 후 계재'로 판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후 계재'로 판정하고 위의 2의 사항을 따른다.
5. '계재 불가'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재 불가'로 판정한다.
6. 심사 위원간의 의견이 모두 다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日本研究』 研究倫理規定

### 제1장 목적

본 규정은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의 학술지인 『日本연구』의 발간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연구환경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연구자

- (1) 연구자는 독창적인 연구물을 작성하며 자신의 연구행위 및 연구결과 내용에 책임을 진다.
- (2) 연구자는 각자 연구물에 있어 표절, 위조, 변조,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을 하지 않는다.
- (3)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논문을 인용,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 (4) 연구결과물에 기재된 공동저자의 경우, 해당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 한하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
- (5)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제3장 심사위원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논문에 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출판 전까지 논문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본인이 논문심사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센터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이 본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이를 편집

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 제4장 편집위원

- (1)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투고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논문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내용 및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 및 제보가 발생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장 윤리위원회

##### (1) 구성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본 연구센터 운영위원 및 본 학술지 편집위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 (2) 목적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3) 운영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단, 해당 위반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센터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제소자의 무혐의를 통보하며 후속조치를 취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확정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와 징계를 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서 논문목록 삭제
- 해당 연구결과의 수정 및 무효화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3년 이상)
- 공식적 연구관리 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

**제6장 부칙**

- 본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최관(고려대)

## 편집위원

고정도(경북대)

구건서(평택대)

구태훈(성균관대)

권혁건(동의대)

김필동(세명대)

김환기(동국대)

남상호(경기대)

박유하(세종대)

백동선(강원대)

설근수(전북대)

손동주(부경대)

양동국(상명대)

오준영(공군사관학교)

윤강구(경상대)

이강민(한양대)

이덕배(전남대)

이성규(인하대)

임영철(중앙대)

장영철(군산대)

편무진(단국대)

허호(수원대)

# 日本研究 *Studies of Japan*

- 제10집 -

2008년 8월 31일 발행

펴낸곳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65번지 청산·MK문화관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Tel : 02)3290-2592

Fax : 02)3290-2538

Homepage : <http://www.kujc.kr>

제 작 도서출판 **보고사**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11번지

Tel : 02)922-5120~1 Fax : 02)922-6990